일본의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과 수륙기동단 창설의 함의

최 정 준*

1. 서론
2. 일본 해군의 상륙전부대 운용
3. 일본 육군의 상륙전부대 운용
4.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과 수륙기동단 창설의 함의
5. 결론

1. 서론

일본이 재무장을 위한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후 70년 역사 속에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의 보유를 금지해 왔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러한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재무장 및 군대의 보유를 금지해왔던 '평화

* 김영옥 평화센터 연구위원

www.kci.go.kr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의 개정을 통해 일본의 전후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1]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 대해 그동안 지배적인 견해는 과거 군국주의를 경험했던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일본 외교의 두 축인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어될 것으로 전망하여 왔었다.[2]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나 군국주의로의 회귀가 일본 내에 주둔 중인 미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며 일본 내 반대여론 등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적 사고는 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대내외적 환경은 아베정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과 미·일동맹의 강화[3], 대중국 봉쇄전략에서 일본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행보를 가볍게 하였다.[4] 결국 지난 9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이 통과됐다. 기존 안보관련 10개 법률개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신설법으로 구성된 안보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1) 윤희일, "아베의 안보법안은 무기없는 쿠데타",『경향신문』(2015.7.30.) 6면.; 임민혁·조백건, "中과 갈등 커져 한국에 부담… 對北억지력엔 도움",『조선일보』(2015.9.21.) A2면.

2)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문정인·서승원,『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p.21.; "일아베정권 평화헌법 개정할 여력없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9_0010192689&cID=10301&pID=10300(검색일: 2015.7.29.).; 최원우, "일 헌법학자 열에 아홉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은 위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9/2015070902170.html(검색일: 2015.7.10.)

3) 윤정호, "방미 앞둔 아베 안보·경제 미국 뜻 다 들어줬다",『조선일보』(2015. 3. 30.) A18면.

4) 김수혜·양지혜, "'아베 야메로' 거센 반발속 ... 일 '집단적 자위권' 법안 중의원도 통과",『조선일보』(2015. 7. 17.) A18면.

www.kci.go.kr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은 그동안 '기반 전력 강화'라는 다소 수세적인 측면에서 군사력을 건설하여 유지해 온 것과는 달리 공세적인 전력 건설 및 군사력 운용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도서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고 군사력 투사기능을 가진 함정과 무기체계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변화된 일본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핵심은 주변국들과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 도서탈환 작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륙전력 건설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상륙전력은 그 성격이 공격적이고 기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

중·미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이 수륙기동단을 창설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에 운용했던 상륙전부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일본의 패전과 전훈을 분석한 연구들은 각 군의 이기주의와 육전과 해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5]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전쟁 초기 연전연승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상륙전 부대의 역할을 간과하였다. 과거 일본이 보유하고 운용하였던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초기 전승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대를 편성하고 운용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명시하고 있는 수륙기동단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전력 증강계획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질서가 형성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 및 상륙전력 건설 움직임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 일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주변국들에게 나쁜 기억상자의 뚜껑을 다시 열게 만들고

5) 外山三郎, 『大東亞戰爭と戰史の敎訓』(東京: 原書房, 1978); 戶部良一 外, 『失敗の本質』(東京: ダイヤモンド, 1984); 野村實, 『日本 海軍の歷史』(東京: 吉川弘文館, 2002) 참조.

www.kci.go.kr

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수륙기동단' 창설(일본판 해병대)[6]에 주목하여 패전 이전까지 일본 해군과 육군이 운용하였던 상륙전부대의 역할에 대해 분석을 한 후 최근 일본의 수륙기동단 창설 준비와 연계하여 그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2. 일본 해군의 상륙전부대 운용[7]

가. 일본 해군의 상륙전부대 운용: 명치유신(明治維新)~1930년대 말

일본 해군의 상륙전부대 운용은 1871년(명치 4년) 영국 해병대를 모방[8]하여 해병대를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해병대 간부 육성을 위한 해병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각 번(藩)에서 생도들을 모집하여 운용하였다.[9] 해병은 보병, 포병의 두개의 병과로 구분되었으며 복장은 영국 해병대와 유사하였고 이들은 함정에서 근무를 하면서

6) 일본의 2014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에 수륙양용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능을 갖춘 기동부대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육상자위대는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태에 즉시 대응해 실효적·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기동사단 및 2개 기동여단으로 개편하고 연안감시부대와 경비부대를 새롭게 편성한다. 이 부대는 오키나와 남서(南西) 지역의 도서지역 부대의 태세 강화와 도서지역에 대한 침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도서지역을 상륙·탈환·확보하기 위해 수륙기동단을 새롭게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정보본부, 『2014 본 방위백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4), 231~251, 257쪽; 최현수, "「2015 일 방위백서」 유사시 타국 영토상륙... 수륙기동단 새롭게 편성",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70057&code=11141700&cp=du(검색일: 2015. 7. 23.).

7) 최정준,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전대의 조직문화 비교"(서울: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9), 제4장 일본 육전대의 조직문화 중 167~177쪽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8) Seiho Arima, "The Western Influence on Japanese Military Science, Shipbuilding, and Navigation," *Monumenta Nipponica*, Vol.19. No.3/4(1964), pp.352~379.

9) 山口喜代松, 『日本海軍陸戰隊史』(東京: 大新社, 1943), pp.51~261 참조.

www.kci.go.kr

함정의 의례(儀禮)에 필요한 위병이나 야포대를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본 해병대는 창설된 이후 사가의 난(佐賀の亂) 진압 작전, 대만생번토벌(臺灣生蕃討伐) 작전, 강화도 사건 등 국내·외의 다양한 작전에 참전하였다. 이후 일본 해군은 1875년(명치 8년)부터 1876년(명치 9년)까지 조직개편을 통해 영국식 해병대와 해병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황국해군육전대(皇國海軍陸戰隊)를 창설하였다. 이 당시 운용되던 육전대(りくせんたい)는 필요에 따라 편조 개념으로 운용되는 군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군 육전대는 수행 임무와 역할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첫째, '군함 탑승 육전대'가 있었다. 이 부대는 해외에서 상황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군 함정에 육전대원들을 상시 탑승시켜 운용하였다. 둘째, '특별 육전대'가 있었다. 특별 육전대는 각 진수부의 해병단에 육전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었는데 파견되는 장소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각 연합에 편제되어 있던 육전대를 파견대 장소의 이름을 따서 '00연합 육전대'라고 불렀다.

〈표 1〉 일본 해군의 육상부대 구분

형 태	부대 성격(규모)
특별 육전대(特別 陸戰隊, Tokubetsu Rikusentai)	해군 특수상륙군(746~3,251명)
경비대(警備隊, Keibitai)	경계 부대(200~500명)
방비대(防備隊, Boubitai)	방어 부대(200~400명)
통신대(通信隊, Tsushintai)	통신 부대(600~1,000명)

출처: http://www.star-games.com/exhibits/snlf/snlf.html(검색일: 2008년 10월 24일).

이 중에서 특별육전대는 해군에서 운용하는 육상부대와 그 명칭과 역할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는데, 위의 〈표 1〉에서 볼 수

www.kci.go.kr

있듯이 해군의 육상부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들 육상부대들 중 해군 특수상륙군(SNLF: Special Navy Landing Forces)은 상륙작전을 주로 수행하여 '일본 해병대'라고 불렸다. 경비대(警備隊, Keibitai)와 방비대(防備隊, Bobitai)도 상륙훈련과 해안 방어훈련을 받았지만 해군 특수상륙군보다는 임무수행이나 편성에 있어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임무와 형태를 가진 부대들을 '일본 해병대'로 통칭함으로써 일본 육전대의 우수성이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

특별 육전대중 가장 유명한 부대는 상하이 특별 육전대(上海特別陸戰隊)가 있다.[10] 이 부대는 국공내전 시(1927년) 육전대가 전개되면서 상하이 특별 육전대를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하이 특별 육전대가 창설된 직접적인 배경은 1927년 중국 국민혁명군이 양쯔강(揚子江) 유역까지 진출하여 상하이가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상하이가 동란의 거점이 되는 경우에는 당시 상하이에 거주하던 일본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일본은 해외 파견 함대에서 1개 중대 이상의 육전대를 양륙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해군은 군함과 구축함을 중국에 증파하여 이들을 상하이·난징·한커우(漢口)에 배치함으로써 특별 편제된 육전대가 상하이와 한커우에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상하이 특별육전대(上海特別陸戰隊)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상하이 이외에도 일본은 자국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방호하기 위해서 육전대를 경계부대로 파견해 배치시켰다. 또한, 오호츠크 해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캄차카 반도에 스키(スキ) 육전대를 창설하여 배치시키기도 하였다.[11]

상하이에서 전투 경험은 그동안 해군이 유지해 오던 상륙단의

10) 山口喜代松(1943), p.184.
11) 앞의 책, pp.181~182.

www.kci.go.kr

조직과 무장을 변경시켜 '해군 특수상륙군'을 창설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2] 일본 해군은 전통적으로 전함에 의존하여 오던 형식을 벗어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륙군을 창설하였던 것이다. 최초 창설 시에 이 부대는 대대급 규모였으며 박격포와 소병기로만 무장되었으나, 상륙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다. 1930년대에 5개 부대가 창설되었는데 상하이와 일본 내의 주요 해군 기지인 요코스카(Yokosuka), 쿠레(Kure), 사세보(Sasebo), 마이주루(Maizuru)에 부대들이 위치하였다. 각 해군 기지에 위치한 부대들은 해군의 전함에 탑재하는 것으로 구상되었고, 해군에 의하여 부여된 제한되고 특화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함포가 있는 경순양함이나 구축함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군 육전대의 규모는 육군이 운용하던 육전대에 비하여 작았다.[13]

해군 특수상륙군의 훈련은 해군의 신병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특히 체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며, 불굴의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는 병사가 육상작전에 제일 적합한 자로 선발되었다. 또한 육상전술을 신속하게 체득할 수 있어야만 했다. 해군 특수상륙군은 상륙작전을 통하여 차후 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해외거주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부대로서의 임무와 치안이 불안정한 곳에 파견되어 치안유지군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1-2개 중대급)로 운용되었으며, 독립된 부대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필요시에 해군에서 편조하여 부대를 운용하였다.

12) David C. Evans and Mark P. 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443.

13) Joseph H. Alexander, *Storm Landing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p.16~20.

www.kci.go.kr

나. 해군 상륙전부대의 발전과 운용: 1940년~1945년

1941년도까지 모든 해군 특수상륙군은 상륙돌격, 해안 방어, 대공방어, 상륙과 보병 전술에 관한 훈련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어떤 부대들은 공정(空挺)요원으로서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전쟁 초기에 해군 특수상륙군은 훈련 수준이 뛰어난 정예부대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해군의 지배적인 전략사상은 거함거포주의와 함대결전사상[14]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개전에 임박하여 상륙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임무를 더욱 다양화시켰다. 해군 특수상륙군은 약 2,000명의 증강된 대대급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무장도 소병기만이 아니라 3인치 함포와 곡사포를 포함한 중화기로 무장되었다. 임무 수행을 위하여 대대급 규모의 부대들을 2~3개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연합 특수 해군상륙단을 편성하기도 하였다.[15]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해군내의 일부 장교들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상륙군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들의 주장은 해군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점차 묻히고 말았다.[16] 해군 내에서 상륙전력의 개발과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곳은 해군 전투부의 포술학교(Gunnery School)에서였다. 포술학교에서는 해군에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상륙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해군군령부(海軍軍令部), 해군성, 해군대학에 건의를 하였다. 1940년에 상륙전 경험이 풍부했던 이마이 아키지로(Imai Akijiro) 소장은 중부 태평양에서 도서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14) 이와 관련해서는 戶部良一 外(1984), pp.14-183; 外山三郎(1978), pp.19~39; 위텐런, 박윤식 역,『대본영의 참모들』(서울: 나남, 2014), 251~390쪽 참조.
15) David C. Evans and Mark P. Peattie(1997), pp.443~445.
16) 위의 책, pp.441~445.

www.kci.go.kr

총참부에 회장(回章·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보게 쓴 문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이 회장에서 40,000~45,000명으로 구성된 상륙군을 창설하여 일본이 점령한 미크로네시아의 6개 지역에 할당하고 공격 및 방어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해군의 수뇌부에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육군이 지상작전을 통해서 대량의 영토와 물자를 확보하는 것에 전쟁 수행의 중점을 두고 있었듯이, 해군의 지휘부에서는 오로지 바다에서의 함대결전사상 이외에는 전략적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

〈표 2〉 1941년 12월 개전 시 일본 해군 특수상륙군 운용 현황

구 분	부대 운용
쿠레(Kure) 제1 해군 특수상륙군	(1) 1940년 11월 15일 편성, 하이난(Hainan)도(島) 작전 참전 (2) 1941년 11월 20일 연합 함대에 파견, 제3함대에 배속 (3) 후지무라 세이료(Fujimura Seiryo) 사령관 지휘하에 팔라우(Palau) 섬에 배치 (4) 1,401명으로 편성
쿠레(Kure) 제2 해군 특수상륙군	(1) 1941년 10월 15일 타다오(Makiuchi Tadao) 사령관 지휘 하 편성 (2) 1,401명으로 편성 (3) 팔라우(Palau)에 배치
마이주루(Maizuru) 제2 해군 특수상륙군	(1) 태평양 전쟁이 발발시 캐롤라인(Carolines)에서 트럭(Truk)의 수비대의 일부분으로 1,609명으로 편성
마이수루(Maixuru) 제1 해군 특수상륙군	(1) 대략 746명으로 편성, 지휘관 불상(不詳) (2) 1841년 12월 8일 창설된 상아 하이난(San-a Hainan)에 위치한 제3중국 파견 함대 예하에 소속 (3) 웨이크(Wake) 섬 침략 시 제4함대에 1개 중대 파견
사세보(Sasebo) 제1 해군 특수상륙군	(1) 1940년 11월 15일 편성 (2) 하이난(Hainan) 도(島) 작전에 참가 (3) 1941년 11월 20일 연합 함대에 배속 (4) 마사나리(Shiga Masanari) 지휘하에 팔라우(Palau) 섬에 배치 (5) 1,622명으로 편성
사세보(Sasebo) 제2 해군 특수상륙군	(1) 1941년 10월 15일 편성 (2) 유로쿠(Hashimoto Uroku) 지휘하 1,437명으로 편성 (3) 제3함대에 배속되어 전쟁 발발이전 Palau로 이동
사세보(Sasebo) 해군 기지 연합 해군 특수상륙군	(1) 1941년 11월 20일 사세보(Sasebo) 제1, 제2 해군 특수 상륙군과 본부 부대 192명이 통합되어 편성 (2) 3,251명으로 편제, 쿠니조(Mori Kunizo) 소장 지휘

www.kci.go.kr

구 분	부대 운용
사세보(Sasebo) 제8 해군 특수상륙군	(1) 대략 746명으로 편성, 지휘관 미상(未詳) (2) 제3 중국 파견 함대 소속되어 상아(San-a), 하이난(Hainan)에 1941년 12월 8일 배치됨
요코스카 (Yokosuka) 제1 해군 특수상륙군	(1) 대략 746명으로 편성, 지휘관 미상(未詳) (2) 상해 해군 기지군에 소속되어 1941년 12월 8일 상하이, 키앙슈 (Kiangsu) 지방에 배치됨
요코스카 (Yokosuka) 제3 해군 특수상륙군	(1) 토요아키(Horichi Toyoaki) 지휘 하에 1941년 9월 20일 편성 (2) 849명의 병력으로 편성, 이중 740명은 공정 훈련 이수 (3) 1941년 11월 20일 요코스카(Yokosuka) 제3 해군 특수상륙군을 위해서 분리되었으나, 1941년 12월에 원상회복됨 (4) 상아(San-a), 하이난(Hainan)에 1941년 12월 8일 배치됨
요코스카 (Yokosuka) 제2 해군 특수상륙군	(1) 키요쉬(Tomonari Kiyoshi) 지휘하 1941년 10월 15일 편성 (2) 746명의 병력 전체가 공정 훈련 이수 (3) 난켄 칸타이(Nanken Kantai)(남부 함대) 하에 위치하다가 상아 (San-a), 하이난(Hainan)으로 이동후 전쟁 발발 이전에 캄란만 (Camanh Bay), 인도차이나로 이동함
요코스카 (Yokosuka) 제4 해군 특수상륙군	(1) 746명의 병력으로 편성, 지휘관 미상(未詳) (2) 제3 중국 파견 함대에 위치, 상아(San-a), 하이난(Hainan)에 1941년 12월 8일 배치됨
승선 분견대 (Shipboard Contingents)	(1) 일반 해군과 같이, 대부분 전함에 탑승하고 있는 상륙군 분견대였음 (2) 정확한 인원 미상
아마추카제 (Amatsukaze) 해군 특수상륙군	(1) 구축함 아마추카제(Amatsukaze)에 탑승하고 있는 대략 20-30명 정도의 소규모 상륙군으로 구성 (2) 모함이 다바도(Davado) 상륙전에 호송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 다바도(Davado) 침략군의 일부가 됨
반다상(Bandasan) 해군 특수상륙군	(1) 경 순양함 진추(Jintsu)와 구축함 쿠로시오(Kuroshio)에 탑승한 소규모 상륙군으로 약 60명으로 구성됨 (2) 모선이 다바도(Davado) 상륙 이전에 다른 호송 임무를 마친 이후 다바도(Davado) 침략군의 일부가 됨

출처: http://www.star-games.com/exhibits/snlf/snlf.html(검색일: 2008년 11월 30일).

www.kci.go.kr

해군이 해안에 세력을 투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 가장 결실을 본 것은 수직포위[17] 개념이었다. 해군은 1940년 유럽 전역에서 독일 공정부대의 작전성공을 계기로 수직포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1940년대 말에 "시험 1001"의 계획하에 해군 특수상륙군에서 선발한 병사들에게 비밀 공정훈련을 실시하였고,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해군 특수상륙군에 최소 2개의 공정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부대들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초기에 동인도 제도를 신속하게 정복하기 위한 합동작전에 투입되었다.

위의 〈표 2〉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해군 특수상륙군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쟁 초기에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전승을 이어나갔다. 진주만 공격이후 일본 육전대는 태평양상의 수많은 도서들을 점령함으로써 일본군이 남방으로 진격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괌, 홍콩, 길버트 제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령 동인도, 북부 뉴 기니아, 솔로몬 제도 등을 단기간에 점령함으로써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일본 해군 지휘부에서는 해상에서 함대결전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상륙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남방으로 전장이 확대되어 나갈 때 선두에 위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던 해군 육전대의 임무 수행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군사작전으로서 상륙작전의 수행이다. 육전대는 남부 태평양의 수많은 도서들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하여 이들을 탈취·확보함으로써 전진기지를 확보하였다. 둘째, 탈취·확보한 도서들에 비행장을 건설하여 차후 항공 작전 수행 및 군수지원기지

17) 낙하산이나 헬리콥터 따위로 착륙한 부대가 지상의 적군의 퇴로를 차단한 후 아군의 지상 공격 부대와 연결하여 적군을 격멸하는 공격 기동 형태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sq=&o=&q=%EC%88%98%EC%A7%81%ED%8F%AC%EC%9C%84(검색일: 2015년 7월 18일).

www.kci.go.kr

를 구축하였다. 셋째, 해외에 거주중이거나 억류중인 일본인 구출 작전을 전개하였다. 넷째, 주요 도서 탈취·확보 이후 방어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미군의 도서탈환작전에 대비하였다.

〈표 3〉 아시아 ·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 해군 육전대의 작전

부대	작전 내용
쿠레(Kure) 제1 SNLF 1개 소대	(1) 파라우스(Palaus)의 펠리우(Pelilu)에서 전쟁을 시작하였고, 조로(Jolo) 섬 점령 이후 다바도(Davado) 침략군으로 선발됨 (2) 펠리우(Pelilu)에서 다바도로 1941년 12월 17일 07:00에 출발하였으며, 다바도 상륙전에 참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참가를 하였다면 12월 20일 05:15에 상륙하여 다바도 시를 점령하는데 참여했을 것임 (3) 12월 25일 01:20에 조로(Jolo)에 상륙하여, 비행장과 조로시 점령에 참여함
쿠레(Kure) 제1 SNLF 2개 중대 이상	(1) 펠리우(Pelilu)에서 제 기습 군(Legaspi 작전)의 일부분으로 전쟁에 참가함 (2) 12월 8일 08:00에 함안 이동을 시작하여 12일 10:40 쯤에 상륙하여 육군과 함께 레가스피(Legaspi) 비행장 점령에 참가함
마이주루(Maizuru) 제1 SNLF 1개 중대	(1) 웨이크(Wake) 섬 침략(invasion, 공격)군의 제1공격군의 일부로 킨슈 마루(Kinsyu Maru)에 탑승하여 작전을 시작하였음 (2) 1941년 12월 11일 첫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해안포대에 의하여 실패함 (3) 이것은 일본 육전대가 해안포에 의하여 상륙이 저지된 사례임 (4) 콰자레인(Kwajalein)으로 철수하여 키도 부타이(Kido Butai)의 지원을 기다림 (5) 중 순양함과 항공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수상함의 지원을 받은 후에 트럭(Truk)으로부터 마이주루(Maizuru) 해군 기지 SNLF와 이미 괌을 점령했던 난카이(Nankai) 분견대로부터의 육군과 함께 웨이크(Wake)의 남부 해안과 윌케스(Wilkes)섬에 12월 23일 02:35에 동시에 상륙을 함 (6) 규모는 적지만, 용맹스러운 미국 해병대원과 치열한 교전을 치른 후 23일 07:30에서 08:00 사이에 공식적인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웨이크(Wake) 섬을 점령함 (7) 그러나 웨이크(Wake) 섬의 다른 3곳의 소규모 섬에서는 미국 해병대에 의한 산발적인 저항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 (8) 일본군의 손실 규모는 1,100명 이상이었으며, 이중 대다수는 사망자였음
사세보(Sasebo) 연합 SNLF 2개 소대	(1) 1941년 12월 8일 제3 기습군으로 전쟁을 시작함(Luzon 해협 작전) (2) 루존(Luzon) 해협의 바탄(Batan) 섬 점령 임무를 수행 (3) 작전종료 후에 재탑재하여 카미구인(Camiguin) 도서 점령 작전에 참여함 (4) 바탄(Batan)은 12월 8일 07:50에 상륙하여 09:50에 비행장을 점령함 (5) 육군 제24 비행장 대대, 해군 제2통신부대, 제3방어부대들이 바탄(Batan)을 점령한 이후에 SNLF 소대들은 재탑재 되어, 카미구인(Camiguin)으로 이동하여 12월 10일 09:25에 상륙함

www.kci.go.kr

부대	작전 내용
사세보 (Sasebo) 연합 SNLF 2개 소대	(1) 라몸 만(Lamom Bay) 공격군의 일부로서 류큐스(Ryukyus)의 아마미 오시마(Amami Oshima)에서 전쟁을 시작함 (2) 12월 18일 출발하여 12월 24일 이른 아침에 도착함 (3) 해군 특별육전대 소대들은 항구 입구의 두 개의 도서들을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12월 24일 08:00에 두 섬에 상륙함
요코스카 (Yokosuka) 제2 SNLF	(1) 미리(Miri)와 세리아(Seria) 점령군의 일부로서 전쟁을 시작함 (2) 캄란만(Cam Rahn Bay)에서 12월 13일 07:30에 출발하여 12월 16일 영령 보르네오(Borneo), 미리(Miri)섬에 상륙작전을 시행, 07:00에 루 통(Lutong) 정제소를 점령함 (3) 재탑재하여 영령 보르네오(Borneo) 남부 끝단인 쿠칭(Kuching)에 12월 24일 04:00에 상륙하여 19:00에 점령함
요코스카 (Yokosuka) 제3 SNLF	(1) 제3 기습 군에 편성되어(Luzon 해협 작전), 1941년 12월 8일 해상에서 전쟁을 시작함 (2) 칼라얀(Calayan) 도서를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1년 12월 8일 11:15에 상륙함 (3) 300×200미터 크기의 비상활주로를 건설한 이후에 타카오(Takao), 포르모사(Formosa)로 귀환함
반다상 (Bandasan) SNLF	(1) 주 상륙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인 1941년 · 12월 21일 09:25에 다바도(Davado)에 경순양함 진추(Jintsu)와 구축함 큐리시오(Kurishio)로부터 상륙함 (2) 전쟁 발발 이후 억류중인 일본 민간인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함 (3) 191명의 일본인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하였으며 재탑재하여 12월 21일 23:00 재상륙하여 244명의 감금 중인 민간인들을 구출하였음
아마츄카제 (Amatsukaze) SNLF	(1) 1941년 12월 22일 15:45에 구축함 아마츄카제(Amatsukaze)로부터 다바도(Davado) 지역에 상륙하여, 2명의 억류 중인 일본 민간인을 구출함

출처 : http://www.star-games.com/exhibits/snlf/snlf.html(검색일: 2008년 11월 30일).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일본 육전대는 대부분이 소대급이나 중대급 등 소규모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작전 전개 간 수상함이나 항공 전력에 의한 지원 없이 상륙기습 형태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상륙작전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하게 장악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상륙작전의 기본 형태로 인식되는 상륙돌격 작전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군 지휘관들이 야간 상륙과 대대급 규모 이상의 적이 방어하고 있지 않은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상륙작전이 소규모로 실시되었고 함포사격이나 항공기의 지원이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전실패 시에는 조직이 와해되는

www.kci.go.kr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해안방어 부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노출하였다.

3. 일본 육군의 상륙전부대 운용[18]

가. 일본 육군의 독자적 상륙전부대 운용 배경

상륙작전은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전개)하는 것으로 지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는 해군과 해병대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육군은 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19] 그러나 일본 육군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독자적인 상륙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 육군이 상륙작전을 시행하기 위해 상륙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특이한 형태의 군사력 운용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육군이 상륙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부대를 보유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육군과 해군간의 갈등관계에 따라 상호간 지원-피지원의 관계를 통한 합동작전의 시행보다는 육·해군이 각각 자신들에게 편제된 군을 활용하여 독단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20] 둘째, 육군은 가상의 적으로 고려했던

18) 최정준(2009), 제4장 일본 육전대의 조직문화 중 178-191쪽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19) 제프리 틸, 배형수 역, 『21세기 해양력』(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1), 359~424쪽.

20) 명치 일본군의 창설 직후에 육군과 해군의 모든 업무를 병무성이 통합하여 관장하였으나, 1872년 4월 5일 병무성이 폐지되고 육군성과 해군성이 독자 기관으로서 분할되었다. 일본군의 해군과 육군의 대립 관계 형성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있다. (1) 해군과 육군의 전담임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2) 육군 내의 사쓰·죠 세력과 해군의 사쓰마 세력의 대립으로부터 이탈 독립하고자 하는 해군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3) 당시의 국제정세가 일본해군의 군비확충을

www.kci.go.kr

러시아와의 전쟁을 염두에 둔 보조전력으로 상륙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것이다. 즉, 육군은 육상작전을 통해 러시아를 괴멸시키는 계획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작전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교두보 확보, 주요 항구·항만 확보, 물자 및 병력보충, 후방시설 경계)으로 상륙전 부대를 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일본 육군은 해군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상륙작전 부대를 양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육군이 교육훈련을 실시했던 부대들은 해군의 육전대에 비하여 장비나 부대규모, 교리 측면에서 더 뛰어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상륙작전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비록 일본 육군이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부대를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지휘부의 전략적 마인드 결여와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부대로서의 부대 정체성의 한계 등으로 이 부대들은 지상작전에 투입되어 상륙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일본 육군 상륙전부대의 발전과 운용

1) 제1단계(태동기): 명치유신~제1차 세계대전

일본 육군의 상륙작전 부대운용과 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태동기)는 189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육군은 청·일전쟁(1894-1895), 대만 점령(1895), 의화단의 난(Boxer Rebellion, 1900), 러·일전쟁

요구하였기 때문에 해군을 독립시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4) 당시 병무성이 너무 비대해져 다른 여타의 성과 균형을 맞추자는 태정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정열,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서울: 팔복원, 1999), 224~226쪽; Stanley L. Falk, "Organization and Military Power: The Japanese High Command in World War II",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76, No.4(Dec., 1961), pp.503~518.

www.kci.go.kr

(1904~1905)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칭타오공략전(靑島攻略戰)과 라오산만(勞山灣)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확보하였다. 이후 독일과의 교전에서 승리한 이후 독일이 보유하고 있었던 남양군도(南洋群島)에 대한 점령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이 기간 중 실시한 상륙작전들은 대부분 대상륙 방어 부대에 의해 저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21] 예를 들어, 청·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 육군의 제1군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 Liaotung Peninsula)에 무혈상륙을 한 이후에 100 마일 남부로 이동하여 뤼순(旅順, Arthur) 항을 점령하였다. 육군의 제2군은 산둥반도(山東半島, Shantung Peninsula)에 상륙하였는데 이때에도 중국의 대상륙 저항은 경미하였다. 상륙군은 2주내에 상륙지점으로부터 35마일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목표인 웨이하이(威海, Weihaiwei) 항을 탈취하였다.

상륙작전을 위한 교리와 장비의 발전은 상륙전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지속 발전하였다. 전함의 엄호 하에, 해군 특수상륙단이 육군 부대들보다 먼저 해안에 상륙하여 해안두보(beachhead)를 확보하고, 적의 반격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러·일전쟁은 1920년대까지 일본 상륙전 부대의 전형적인 상륙전술을 알게 해주는 예이다. 전쟁 시 일본 해군이 해상의 지역적 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뤼순항에 기습 공격을 실시한 후, 일본 육군의 제2군은 뤼순 항의 러시아 요새로부터 약 40마일 북쪽에 위치한 랴오둥반도에 무혈상륙 할 수 있었다. 또한, 경포병으로 무장한 해군 육전대가 육군의 주력 부대인 3개 사단의 주 상륙을 준비하기 위해 상륙지점에 상륙을 실시한 후 육군 공병대대가 후속상륙을 실시하는 등 육·해군 간에 협조된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초기 일본군 상륙전 교리의 특징을 보여

21) 山口喜代松(1943), pp.146~183.

www.kci.go.kr

주고 있다. 첫째, 상륙군의 안전한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 교통로의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견고하게 방어중인 적의 거점을 회피하여 방어되지 않은 곳을 상륙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 셋째, 해군 상륙단을 적절한 규모의 공병부대와 같이 편성하여 파견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며, 주상륙을 준비한다. 넷째, 상륙지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공격속도를 늦추고, 견고하게 구축된 상륙지역은 차후 내륙작전을 위한 발판지역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교리는 사할린 침략 시(1904년 7월 7일)와 칭타오(青島, Tsingtao)에 있는 독일 전진기지를 포위하기 위한 산둥반도 상륙(1914년 9월)과 시베리아 원정(1920년 4월 22일)을 위한 상륙 시에 적용되었다.

2) 제2단계(성장기): 제1차 대전 이후~아시아・태평양 전쟁 이전

일본 육군의 상륙작전 발전의 두 번째 단계(성장기)는 1918년부터 193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 육군이 가장 강력한 상륙군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육군은 수많은 합동연습을 통하여 상륙작전 교리와 전술을 시험하였다.[22]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일본 육군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군이 직면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련의 붕괴와 유사한 러시아 제국의 해체는 그동안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하여 오던 육군에

22) 일본 해군과 육군은 1930년대의 활발한 상호 교류와 합동 상륙작전 훈련의 경험을 토대로 일련의 상륙작전을 위한 지침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1932년에 발간된 '상륙작전 개요(上陸作戰 槪要, Tairiku sakusen koyo)'는 이후 일본군의 영구적인 상륙전 교범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육군과 해군은 상륙작전에서 각 군간 협력을 위한 원칙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지휘권 관계가 정립되었다. 일본군의 상륙작전 개요에서 상륙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립했던 원칙들은 '적이 없고, 새벽 시간에 그리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였다. 이후 이 원칙들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비롯하여 일본군이 상륙전을 수행할 시 변함없이 적용되었다. David C. Evans and Mark P. Peattie(1997), pp.442~444.

www.kci.go.kr

게 주요한 위협이 되는 적을 사라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은 제국국방방침의 주적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변경(1918년)하였고 일본 육군은 루존(Luzon), 필리핀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1개의 사단을 지정하였다. 이후 육군은 개정된 제국국방방침(1923년)과 괌(Guam)을 탈취하는 것을 포함하는 확대된 육군 역할(1926년)에 따라 상륙작전을 위한 3개의 사단을 지정하여 운용하였다.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를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까지, 일본 육군은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할 적의 대상륙 방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갈리폴리 상륙작전 간 발생한 연합군의 재앙은 잘 방호되어 있는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일본 육군의 상륙작전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육군은 미래의 상륙작전은 적의 화력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상륙훈련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코키(Shikoky) 해안(1922년), 이세 만(Ise Bay, 1925년), 이주(Izu)군도의 니이찌마(Niijjiima, 1926년), 와카야마(Wakayama) 해안(1929년)에서 해군이 주도하고 있었던 상륙훈련에 육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동들에서 육군과 해군은 해군 함포지원, 합동 포격을 위한 지도, 해안 이동 간 지휘통제、통신의 문제, 다양한 종류의 상륙주정, 사단급 규모의 돌격, 연막탄의 사용과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함안이동(해상에서 육상으로의 이동) 문제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23]

또한 이 시기에 일본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 시 목격했던 기술 혁신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에, 군대와 장비를 현대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18년과 1937년(중·일전쟁) 사이에 육군은 동력화 상륙

23) 앞의 책, p.442.

www.kci.go.kr

주정(motorized landing craft)을 개발함으로써 해군 상륙지원단의 도움없이 신속하게 병력들을 함안이동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합동작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독자적인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였고, 상륙군을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 공병과 상륙주정단(landing craft group)을 조직하였다. 육군에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상륙작전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편제된 부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단과 부대들이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일본 육군의 일반 참모들은 초기 단계에서 상륙작전은 해상통제권의 장악 여부가 작전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함안이동 시 가장 큰 위협은 공중으로부터의 위협[24]에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로 상륙작전에 대한 식견이 높았다.

1918년 7월 제5 사단은 일본 육군 최초로 독자적인 사단급 규모의 상륙훈련을 수행하였다. 상륙훈련을 참관한 육군 참모총장 우에하라 마사자쿠(上原勇作, Uehara Masazaku)는 견인되는 목재 바지선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상륙훈련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철제의 자력추진(self-propelled) 상륙주정 제작에 관한 연구를 지시하였다. 1921년 사가미 만(Sagami Bay)에서 높은 파도(高波, high waves)에 의해 상륙훈련 중이던 제6사단 병사들이 탑승한 바지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대화된 상륙주정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새로운 주정이 개발되는 동안, 육군은 1922년도에 함정에서 곧바로 해안으로 이동하는 육군 독자적인 상륙전 개념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면서 수많은 부대들이 상륙훈련

24) 상륙군에게 가장 취약한 시기는 병력을 탑재한 함정이 상륙해안까지 이동하는 시기인 함안이동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적의 항공기, 잠수함 그리고 함정, 기뢰 등에 의해 공격을 받을 시 상륙군은 탑승한 함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따라서 함안이동 간에는 작전해역 일대에 대한 사전 기뢰제거 작업, 공중 및 해상엄호 세력을 병행 운용해야 한다.

www.kci.go.kr

경험을 축적하였다.

새롭게 생산된 철제, 자가 추진 상륙주정을 이용한 실전 훈련(1925년)도 실시되었으나 결과는 불만족스러웠다. 훈련 이후 제3사단장 이노우에 키타로(井上 鬼太郎, Inoue Kitaro) 사단장은 참모부에서 상륙작전 임무를 위한 특수 사단과 필요한 자원, 물자, 장비, 훈련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참모부에서는 제5, 11, 12사단 등 3개의 사단에게 상륙작전을 전담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25] 상륙작전 부대로 지정된 3개의 사단들은 주요한 군항으로부터 신속하게 전개하기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필리핀에 근접해서 상륙부대를 위치시킨 것은 향후 상륙작전을 시행할 시 부대 전개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3개의 사단 선정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상륙주정이 건조되었는데 이것은 다이하츠(ダイハツ, daihatsu), 고하츠(こハツ, kohatsu)와 유사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계속 사용되었다.[26]

---

25) 3개의 육군 사단을 상륙작전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훈련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된 일본의 국방방침에 근거한다. 1918년 국방방침의 수정과 용병강령의 개정 시 대미전쟁의 경우, 육·해군 공동으로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으나, 1923년 전면적인 개정 후에는 개전 초기에 괌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다. 국방방침, 소요병력, 용병강령의 개정에 따라 육·해군의 연도 작전계획도 대미전쟁을 상정하여 수립되었다.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1926년도 작전계획에서였다. 그에 의하면 미·일 해군 주력의 결전은 '개전 후 45일 전후'로 예상하고, 이에 앞서 필리핀의 마닐라, 캬비데군항 등을 점령한다. 그를 위해 육군은 상설 3개 사단을 사용한다. 상륙작전 훈련을 위해 참모총장으로부터 제5, 11, 12사단에 훈령이 하달되었다. 藤原 彰, 엄수현 역, 『일본군사사』(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169~171쪽.

26) 다이하츠는 1929년에 건조된 것으로, 금속 외피와 디젤 동력을 가진 41~49피트(feet) 길이로 8.5노트(knots)로 운항할 수 있었다. 육군 수상 운송 지휘부의 승무원은 7명, 무게는 10톤으로 70명의 병력 혹은 10필의 군마 혹은 탱크 한대 혹은 12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다. 소규모 형태인 고하츠는 1927년에 완성되어 5명의 승무원으로 대략 다이하츠의 절반 정도의 물자를 수송하였다. Christina W. Beilstein, *Japanese Naval Vessels at the End of World War II,*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p.86.

www.kci.go.kr

상륙작전을 전담하게 될 육군의 서부 사단들(제5, 11, 12사단)은 해군과 함께 주기적으로 상륙돌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수공병 훈련은 양륙 훈련과 교리를 시험하였으며, 해안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서부 사단들의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역량은 점차 발전되어 갔다. 이 당시의 훈련 수준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이전에 일본 육군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 육군은 상하이 사건(Shanghai Incident, 1932년)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륙작전 교리와 축적된 훈련 경험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27] 2월 15일 참모부는 제5사단으로부터 임시 공병부대와 제12사단으로부터 보병 1개 연대, 포병 1개 포대, 탱크 2개 대대를 제9사단에 배속시켜 상하이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양륙을 하였고, 시가전에 참가하였다. 2주 후에, 제11사단은 중국군의 저항을 피하여 상하이 북방 25마일에 후속상륙을 하였다. 상륙군의 상하이로의 성공적이고 신속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적의 측면을 포위하기 위한 후속 부대의 운용에 대한 전술 연구는 지속되지 못했다. 이러한 전술적 운용의 한계는 일본이 상륙작전의 효용성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제한사항이 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위협[28]으로 간주되었던 러시아가 붕괴 이후

27) 한편으로 상하이 사건은 육군과 해군에게 상륙작전의 발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2월, 일본 해군 상륙단은 중국의 국민당 군과 시가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피해를 입었다. 비록 혼성여단이 상륙하여 포위되어 있었던 상륙단을 구출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육군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상륙작전에 사용된 해군 함정은 철갑화 되지 않았으며, 탄약과 무기의 운반도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육군은 독자적으로 대형상륙함과 수송선, 상륙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藤原 彰, 엄수현 역(1994), 443쪽.

28) 일본은 이미 18세기부터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난학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현실주의적인 국제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카에조 풍설고(赤蝦夷風說考, 1784)',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1786)',

www.kci.go.kr

새롭게 부흥하면서 전략환경이 변함에 따라 일본 육군의 군사전략은 상륙작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미국을 주적으로 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육군이 1930년대에 상륙전을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지라도 육군의 임무는 적의 지상병력을 괴멸시키고, 대규모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육군이 상륙작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29] 일본이 러시아의 위협을 미국보다 더 크게 상정했던 것은 만주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만주를 일본이 국력을 증진시켜 나갈 근원지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주는 러시아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러시아의 부활은 일본에게 만주 지배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30]

일본군이 만주사변(1931년 9월)을 통해 만주정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일본과 러시아의 군대가 불분명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상호간에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이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맞대게 됨으로써 미국은 이제 육군에게 제2의 가상적국으로 간주되었다. 1930년대에 참모부에서는 미국과의 기본적인 전쟁 계획에 대해서도 이를 최신화시키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모든 훈련과 교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일본 육군은 대륙에서의 지상전 준비에만 집중하였고 태평양에서의 전쟁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육군은 대양에서의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국병담(海國兵談, 1791)' 등의 저서들이 러시아의 위협을 상정하여 출판되었다. 장인성, 『메이지 유신-현대 일본의 출발점』(서울: 살림, 2007), 28~29쪽.

29) 藤原 彰, 엄수현 역(1994), 443쪽.

30) George Feifer, *The Battle of Okinawa: The Blood and The Bomb*(Guilford, CT: The Lyons Press, 2000), pp.33~34.

www.kci.go.kr

전략환경과 인식의 변화는 기존의 상륙작전 전담 사단들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도록 군 구조를 변화시켰다. 예산 부족으로 사단 수를 증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본 육군은 1936년 전쟁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 필리핀에 상륙하는 부대로서 임무가 부여되었던 제5, 11사단을 만주 파견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비사단으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또한 제12사단을 전선의 북쪽에서 소련 적군(赤軍)의 군사력 증강에 대항하기 위한 증원 부대로 만주에 파견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은 육군의 부대구조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본군 참모부에서는 루거우차오사건(蘆溝橋事件, 1937년 7월) 다음에 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쟁은 제한전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참모부에서는 중국군을 겁주기에 충분한 일본군을 전선에 배치시켜 적의(敵意)를 전달함으로써 신속하게 종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게는 제5, 11사단을 포함한 단지 3개의 상비사단 외에는 중국의 북부 지방으로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비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제5사단은 중국 북부 평원에서 전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5사단은 상륙작전을 위하여 훈련된 사단으로서 야포를 견인하기에 충분히 강한 군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제5사단은 야포 한 문당 세 필의 군마를 이용하여 포를 견인해야만 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보급로를 신장시켰고, 사단의 기동성을 저하시켰으며 임표(林彪, Lin Piao)의 팔로군(Eight Route Army)에 의해서 수송부대가 전멸되고 말았다.

제11사단은 점차 전투가 확전되고 있던 상하이로 파견되었다. 제11사단은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상륙을 하였으나, 상하이로 진격하는 길목에서 요새를 점령하고 있던 중국군과 전투를 해야만 했다. 제11사단은 이러한 형태의 전투에 훈련이 되어

www.kci.go.kr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795명의 장교와 사병이 전개했으나 2,293명이 전사하고 6,08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율은 거의 66%나 되었다. 이때의 심각한 전투력 손실로 제11사단은 이후부터는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다.

전쟁이 점차 격화되어 감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동원 또한 전쟁 전에 수립했던 계획을 붕괴시켰다. 1938년 여름까지, 육군은 17개 사단에서 34개의 사단으로 두 배의 병력으로 팽창되었다. 대규모 동원에 의한 부대수의 증가는 상비군의 특성을 변화시켰다. 1938년 8월 육군은 11.3%의 정규군, 22.6%의 제1예비역(30~34세), 45.2%의 제2예비역(20~29세), 20.9%의 보충부대 예비역(25~37세)으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동원된 사단에는 정규사단에서 기간요원들을 보충하였다. 예를 들어 전개된 제5사단과 제11사단을 대체하고 상륙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모부는 동원병력으로 제18사단을 창설하였는데 이때 제12사단에서 파견된 간부들을 소집된 예비역과 징집병들을 훈련시키도록 편성했다. 제18사단은 단 2개월 후에 상하이 근처에서 첫 번째 상륙작전을 수행했다.

일본이 중국군과의 싸움에 열중해 있는 동안 만주로 러시아군이 선제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육군은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지방에 많은 수의 부대를 주둔시키게 만들었다. 제11사단은 상하이 전투에서 대규모 피해를 당한 후 재조직을 실시 중 만주 동부에서 제12사단에 합류했다. 이들 사단들은 1945년 대본영에서 제11사단은 일본 본토로 제12사단은 대만으로 본토방위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재배치를 명령할 때까지 그곳에서 주둔 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했다. 결국 이 두 사단들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중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다. 또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다른 사단인 제5사단은 같은 기간 중 중국 북부에서 전투에 참가했다. 즉, 육군 참모부에서는 '서부사단들(제5·

www.kci.go.kr

11·12사단)'을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화되고 훈련된 역할에 따라서 활용하지 않고 지상작전에 투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과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3) 제3단계(쇠퇴기):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비록 제대로 된 상륙작전을 전개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중국 전역은 일본군에게 상륙작전 교리를 입증시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상륙부대 조직을 정예화하고 병력과 물자를 취급하며, 다이하츠에 맞추어 현측 크레인을 낮추고 상륙 주정을 들어 올리며 전통적이고 오랜 경험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병사들은 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일본 육군은 함안이동 간 공중 공격에 노출된 병력 수송선을 적 항공기로부터 보호하는데 관심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상륙작전 기간중 해군과 항공 엄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41년 2월과 3월에 "C"작전이라고 불리는 5차례의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의 상륙작전은 제5사단, 18사단 그리고 경계 사단의 독립 대대들이 중국 남부 해안에 일련의 상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격리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본 육군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지점에 다수의 대대들을 동시에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야간 상륙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해안에서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 정교한 상륙작전 실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갔다. 이러한 실전 경험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일본 육군의 상륙전 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립되었다. 첫째, 미국이나 연합군이 상륙전을 수행하는 방식인 상륙해안에 사전 압도적인 화력을 투입하여 무력화시킨 후에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기습에 의한 목표 탈취에 더 중점을 두었다. 둘째, 주간보다는 야음이 부대의 행동을 은폐시켜 주는

www.kci.go.kr

야간을 상륙작전 시간으로 더 선호했다. 셋째, 적의 주력이 방어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이격된 곳을 상륙지점으로 선택했다. 이것은 육·해군 간의 원활한 협조하에 합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교리를 발전시키지 못했던 점과 상륙돌격 보다는 기습에 중점을 둔 일본군 교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 상륙작전을 통하여 일본 육군은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부대를 운용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 주둔하면서 재조직 중이던 제5사단과 경계 및 제18사단으로 하여금 상륙해안에 확인되지 않은 적에 대항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도록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본 육군은 제48사단, 제55사단 그리고 제56사단 등 신규 사단에게도 상륙훈련을 하도록 특성화시켰다. 제55사단과 제56사단은 이전에 상륙작전 전담부대였던 제11, 12사단의 보충부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일본 육군의 태평양에서 상륙작전을 실기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교리 발전의 연속성은 오랫동안 단절되었고, 상륙작전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육군이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1940년에 일본 육군이 수행했던 일곱 번의 주요 훈련도 상륙작전을 다루지 않았다. 다음 해에 실시된 13번의 훈련 중 일곱 번은 상륙작전에 중점을 두었는데, 동력화 된 장비의 양륙과 해안두보로의 보급, 상륙돌격, 상륙지역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의 사용 그리고 소형 보트에 의한 상륙작전이 하이난 섬(Hainan Island)에서 이루어졌다. 상륙훈련에 참가했던 부대들은 합동 군사훈련, 군단 및 사단 군사 훈련, 도하작전, 혹은 군사력의 전개를 위한 수단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부대 훈련들은 비록 상륙작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고 할지라도

www.kci.go.kr

주적으로 간주되어왔던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훈련인 요새화된 진지에 대한 공격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 대항하기 위한 부대 할당은 단지 11개 사단과 3개의 여단만을 할당하였을 뿐이었다. 더욱이 일본 육군의 150일 작전 계획 표상에는 남부 전선에 위치한 사단중 반수를 다음해 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철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전쟁 발발 시 일본 육군은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남방 전선에서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한 전력운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결국 상륙작전을 위해 교육되고 훈련된 사단들은 제대로 된 작전을 전개하지도 못한 채 소멸되거나 유휴전력이 되고 말았다. 일본 육군이 상륙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간과하지 않고 서부사단들을 본래의 운용 목적에 맞게 운용했더라면 이들은 해군 육전대 못지않은 많은 전과를 달성했을 것으로 본다.

다.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에 대한 평가

일본 해군과 육군에서 운용했었던 상륙전 부대들은 오늘날 '일본판 해병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수륙기동단' 창설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 운용되었던 상륙전 부대와 현재의 전략환경은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의 운용 경험에서 과오를 만회하고 장점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부대에게 정체성의 부여와 역사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이지 유신 시 서구 열강의 군사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한 이후 일본의 상륙전 부대는 육군과 해군에서 각각 독자적인 형태로 운용되었다. 이들 부대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본이 외부로

www.kci.go.kr

세력을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군이 운용하였던 상륙전 부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군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군사 선진국들의 제도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상륙전 부대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해군과 육군에서 상륙전 부대를 창설하고 이들이 운용되는 과정은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한 군비확장을 통한 '부국강병' 정책[31]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육군과 해군은 상륙전부대를 운용하기 위하여 교리와 전술을 발전시키고 상륙주정을 건조하여 운용하는 등 노하우를 개발하였다.

〈표 4〉 일본대본영 발표(舍陸海軍省公表) 연도별 일본군 상륙작전 실시 횟수 일람표

연	1941	1942												1943											
월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륙작전	16	14	9	5	2	0	1	0	1	0	0	0	0	0	1	0	0	1	0	2	0	0	2	3	3

연	1944												1945							총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상륙작전	2	2	1	0	0	2	2	2	1	3	0	1	2	3	3	1	1	0	0	0	86

출처 : 冨永謙五, 『大本營發表』(東京: 青潮社, 1952), pp.39~43.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해군 육전대는 남방으로 진출하는 해군의 전략에 따라 태평양 상의 도서들을 파죽지세의 기세로 점령하여 나갔다. 전쟁이 개시되자 일본은 미드웨이, 홍콩, 웨이크, 필리핀, 괌, 싱가포르의 군항에 공습을 단행하였다. 공습 이후 육전대는 해군, 육군과 함께 말레이시아 반도에 상륙하여 3일 만에 영국 동양함대의 주력을 격멸하였다. 이후 필리핀, 괌, 보르네오, 자바, 뉴 기니아에 상륙을 하였다. 이후 태평양과 인도양, 알류우샨 열도에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동태평양의

31) 야마다 아키라, 윤현명 역,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서울: 어문학사, 2014), 17쪽.

www.kci.go.kr

주요 거점을 탈취·확보하였다. 해군 육전대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혁혁한 전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상하이사변, 중일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육전대의 맹위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32]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 초기 전체 기간중 총 86회의 상륙작전 실시 중 1941년과 1942년 6월까지 총 47회(55%)가 기습을 달성하고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 실시되었는데 해군 육전대는 이들 작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육군과 해군이 독자적으로 상륙전력을 건설하고 운용하였다는 점이다. 상륙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역할은 해군이 주가 되어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일본군의 경우는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 되는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이 동일하게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일본 해군의 경우 해군 기지의 방호와 상륙작전, 도서지역에 대한 전진기지 확보 및 방어, 해외 주둔 자국민의 구출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비해 육군에서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하여 군사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륙작전 부대를 지상작전을 위한 보조 세력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전 부대에 상륙작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다가 상륙작전 전담을 위한 3개 사단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육군과 해군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륙작전을 위한 교리개발과 교육훈련에서는 상호 협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에는 육군과 해군 간의 합동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군종 간의 갈등과 상이한 군사적 목표, 의사소통의 부재는 우수한 상륙전 능력을 보유한 군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합동작전에 대한 마인드 결여는 결국 양군이 협력하여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군사력의

32) George Feifer(2001), pp.262~264.

www.kci.go.kr

낭비를 초래했던 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 육군과 해군에서 운용된 상륙전 부대는 독립된 군종으로서 운용되기 보다는 각 군에 종속되어 운용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과 발전이 제한되었다. 조직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33] 1) 다른 집단과 분명히 격리되어 있으면서, 강력한 무기를 조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 곧 중무장성이다. 2) 1차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완결된다는 것, 이른바 자기 완결성이다. 이 두 가지 핵심요소가 독립된 상륙군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군 육전대 그리고 육군의 상륙작전 전담사단이 갖추어야할 요소들이었다. 해군의 경우 함정 근무자 중 일부 병력을 차출하여 육전대에 편성함으로써 임무가 종료될 경우 해군으로 복귀해야 했다. 육군의 경우도 상륙작전을 전담하도록 3개의 사단을 지정하였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부대였다. 해군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독립된 규모의 상륙작전 전담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일부 장교들의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해군 수뇌부에서는 함대결전사상, 거함거포주의 등 해상에서 작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편성은 승인되지 못하였다. 육군의 경우도 상륙작전을 위한 교리의 발전과 교육훈련, 상륙 주정을 비롯한 장비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상륙작전을 러시아와의 지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작전으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육군은 북방위협의 근원으로 인식되었던 러시아의 부침에 따라 상륙작전 전담부대의 운용에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결국 육군과

33) 사카이야 다이치(界屋太一), 김순호 역, 『조직의 성쇠』(서울: 위즈덤 하우스, 2002), 42~44쪽.

www.kci.go.kr

해군의 상륙작전 부대들은 독립된 군종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으로 부대가 운용되었다.

넷째, 이러한 지위상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육전대원들은 감투정신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뛰어난 전투수행 능력을 보여 주었다. 육전대원들의 뛰어난 전투역량은 미국 해병대와의 전투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과달카날 전투를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미국 해병대원들은 일본 육전대원들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다. 미국 제2해병사단 정보참모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군부대는 보통의 일본 군대보다 일반적으로 더 잘 훈련되었고, 불굴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34] '일본 제국의 육전대는 단결정신, 규율, 사격술, 중(重)화기체계의 효율적 사용, 소부대 단위의 리더십, 용맹성 그리고 최후의 일인까지 싸워서 죽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유한 우수한 군대로 평가하였다. 타라와(Tarawa) 전투에 참가했던 제6해병 사단 제1대대 존슨(William K. Jones) 소령은 전투 중 조우했던 일본 육전대원들을 보고 '이러한 방어자들은 매우 강건했고, 6피트(feet)나 되었으며, 내가 본 일본인 중에서 가장 컸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일본군의 신체적 특성과는 상이한 육전대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타라와 작전에 참전하였던 제2해병 사단 헤이어스(Lawrence C. Hayes) 소령은 '육전대의 장비는 훌륭했고 대규모의 탄약을 포함하여 보급품은 넘쳐났다.'[35] 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들 중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평가도 있을 수 있으나, 미국 해병대원들에게 육전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우했던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

34)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Boston: Houghton Miffin Company, 1989), pp.1~2.

35) Theodore L. Gatchel, *At Water's Edge: Defending against the Modern Amphibious Assault*(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6), p.25.

www.kci.go.kr

럼 일본의 상륙전 부대들은 미국 해병대원이 평가하기에도 임무수행능력에 있어서는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상륙작전 부대를 운용하는 일본군 지휘관들의 전략적 마인드 결여로 이들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일본군은 기습상륙과 야간 상륙을 가장 우선시하여 부대를 운용하였으며, 적이 방어하고 있는 해안을 우회하여 상륙하는 것을 기본 교리로 정립하였다. 그러나 전쟁 초기에는 이러한 기습작전이 성공을 거두었으나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한계점에 도달하고 말았다. 또한 일본 육군의 경우 상륙작전을 위해 준비된 3개 사단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지상작전에 투입시킴으로써 조기에 전투력이 손실되거나 유휴전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전략적 마인드 결여와 교리적 한계는 결국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운용, 교육훈련, 무기체계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전쟁 초기의 우세를 전과확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섯째, 성공적으로 상륙작전 부대를 운용하기 위한 제해권과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은 기습공격을 통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일본군의 공격기세는 꺾이게 되는데 제해권의 상실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일본군은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942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극히 제한적인 상륙작전만 수행할 수 있었다. 다수의 장비와 물자가 적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작전을 시행할 시 처하게 될 위험요소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었을 때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확연히 낮아진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www.kci.go.kr

4.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과 수륙기동단 창설의 함의

가. 수륙기동단 창설 계획과 일본의 상륙전 능력

일본은 '2013년 방위백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수륙기동단' 창설을 공식화하였다.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로 불리는 안보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에 대한 방위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의 '해병대'와 같은 기능을 갖는 부대가 필요함을 밝혔다. 물론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도서분쟁 시 이를 탈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군사력 운용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설된 이후 다양하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 수륙기동단 창설 계획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대외충돌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센카쿠 열도 등 도서지방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우려는 2013년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데 일본의 『22방위대강』에서는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서 벗어나 '군사력 운용'에 중점을 두어 주어진 방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2대강에서는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을 갖추고, 군사기술수준의 동향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을 보유한 '동적 방위력'을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다.[36] 기존의 군사력 보유, 즉 현시(顯示)만으로 적의 의지를 억제하고자 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방위력 운용의 기본 방침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평가하면서 방위성 내의

36) 국방정보본부, 『2013 일본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3), 172쪽.

www.kci.go.kr

‘방위력 검토위원회’에서 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검토와 국회 등에서도 적기지 공격능력 및 해병대와 같은 기능의 보유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도서방위를 위해 해병대와 같은 기능을 일본이 갖추어 나갈 필요성’을 언급(2013. 5. 8. 참의원 예산위원회 시)함으로써 이른바 ‘일본판 해병대’의 창설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도서지역에 대한 침공이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상륙·탈환·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륙양용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대규모의 다수의 수륙양용전문부대로 구성된 수륙기동단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37]

일본의 이러한 방위계획의 변화 배경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 4)와 중국의 일본 영해 침범 및 영공 침범을 포함한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활동 확대[38]를 위협 요인으로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을 호기로 삼아 공세적인 방위태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본의 도서 방위개념은 도서가 점령된 경우에는 항공기나 함정으로 대지(對地) 공격을 통해 적을 제압한 후, 육상자위대를 상륙

37) 국방정보본부(2014), 245쪽.

38) 일본은 중국의 활발해진 군사행동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의 군사행동으로 1) 일본 근해 등에서의 중국의 활동 활성화로 중국 공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침입(2008년 이후 50회 이상), 중국 해감소속 고정익기가 센카쿠열도의 영공 침범(2012), 동중국해에서 쟝웨이 Ⅲ급 프리깃함이 해상자위대 자위함에 대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2013)한 사례 등이 있다. 2) 중국 해군에 의한 태평양으로의 진출 상시화 가능 우려로 인식되는 것으로 킬로급 잠수함,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등 중국 함정 10척이 오키나와 본토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서 오키노토리섬 서쪽 해역으로 진출할 때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대해 중국 함재 헬기가 근접하여 비행(2010), 중국 해군함정이 오스미해협을 동항(東港)하여 태평양으로 진출(2012), 중국해군 구축함 등이 나카노카미섬과 요니구니섬 사이를 항행(2012)한 사례들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중간의 긴장 수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국방정보본부(2013), 174쪽.

www.kci.go.kr

시켜 이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지역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서지역에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습과 미군과의 실기동훈련[39] 등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도서 방위를 위한 부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중심이 되어 경계작전과 탈환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기본운용 개념이 설정되었다. 『新방위대강』 및 『新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일본 육상자위대는 그동안 자위대 배치의 공백지역이 되고 있는 도서지역의 방위를 위해 부대의 편성 및 인적 구성을 수정하여 효율화·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전문적 기능을 갖춘 기동운용부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태에 즉시 대응해 실효적·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사단 및 2개 여단을 2개 기동사단 및 2개 기동여단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침공이 발생하였을 시 해당 도서지역을 상륙탈환확보하기 위해 '수륙기동단'을 새롭게 편성[40]하여 운용(2018년) 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수륙기동단은 착·상륙 작전을 전개하는 부대, 수륙양용차량을 운용하는 부대 및 화력을 통해 착·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부대 등으로 구성되는 약 3,000명 규모의 도서방위 전문부대이다. 수륙기동단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잠재적 분쟁지역 혹은 분쟁이 발생한 지역

39) 일본은 일본 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간의 연합훈련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육상 자위대는 수륙양용작전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2005년부터 미국 해병대와 지속적으로 공동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던 '돈 불리츠(Dawn Blitz)' 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육상자위대가 미국 육군에 비해 해병대와 실기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상전보다는 상륙전, 도서탈환작전 등과 연계하여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40) 수륙기동단이 미국 해병대와의 차이점은 미국 해병대가 단독으로 수륙양용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가칭)은 해상·항공자위대 부대와 통합하여 운용되는 형태로 수륙양용작전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방정보본부(2014), 257, 299쪽.

www.kci.go.kr

으로 이동시키는 수단 또한 중요하다. 해상자위대가 현재 보유 중인 헬기항모[41]를 비롯한 함안이동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수륙기동단의 함안이동을 지원할 주요 함정

일본 해상 자위대는 헬기항모로 분류되는 이즈모(出雲, 2013년)와 자매함인 카가(加賀, 2015년)함을 진수시켰다. 이들 두 함정은 그 함명(艦名)[42]과 함정의 크기, 용도 등에 대하 여 많은 궁금증과 우려를 자아내었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반응은 과거 일본의 팽창정책으로 피해를 보았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일본이 최근 진수시킨 이즈모급 함정은 실질적으로 경항공모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즈모급의 함정이 단순히 항공모함으로서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이 따르며 고정익 항공기인 F-35B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일부 갑판의 시설을 변경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항공모함으로 전환할 시 현실에서는 비용대 효과측면서 볼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즈모급 함정의 주목적은 적의 항공모함에 자국의 항공모함으로 맞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상에서의 세력투사에 중점을 둔 군사력

41) https://namu.wiki/w/%ED%95%B4%EC%83%81%EC%9E%90%EC%9C%84%EB%8C%80 (검색일: 2015년 8월 15일).

42) 이즈모(いずも), 카가(かが)의 함명이 주변국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구일본해군이 운용하였던 함정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이즈모라는 함명에 대해 중국은 중일전쟁 시 상하이 포격을 지휘했던 장갑 순양함 1세대와 동명이며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이즈모 함정이 참전하였던 러일전쟁에서 패배했던 기억으로 인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2015년 8월 진수한 카가에 대해서도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가는 과거 상하이 사변과 중국사변 당시 항공모함 호쇼와 함께 중국 연근해 도시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던 함정이었다. 중국은 카가를 '악마의 배(惡魔艦)'로 혹평하면서 비난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종전 70주년을 맞아 "종전 70주년을 맞아 당시의 패배를 잊지 말고 앞으로는 욱일승천하자"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329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amu.wiki/w/%EC%B9%B4%EA% B0%80 (검색일: 2015년 8월 25일).

www.kci.go.kr

건설이라는 분석이 더 타당할 것이다.

〈표 5〉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항모와 수송함 현황[43]

함정종류	급	만재배수량	기준배수량	보유수	기타
헬기호위함	이즈모급	27,000톤	19,500톤	2척	헬기 14대
	휴우가급	18,000톤	13,950톤	2척	16셀/헬기 11대
강습상륙함 (LPD)	오오스미급	14,000톤	8,900톤	3척	
LSU수송함	유라급	배수량 590톤		2척	
LCU수송함	1-go급	배수량 420톤		2척	
LCM수송정	YF-2121급	배수량 25톤		10척	
	YF-2150급	배수량 55톤		2척	
LCAC	LCAC			6척	

2012년 일본 방위성은 행정사업 리뷰에서 “22DDH(이즈모급) 호위함은 헬리콥터 운용을 중시한 그룹(호위대군)의 핵심 전력으로 도서 방위사태, 대규모 재해 및 재외 일본인 수송 등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긴급 원조 활동 등 국제 평화협력 활동에 종사한다”[44]고 기술했다. 이것은 이즈모급 함정을 이용하여 자국 및 해외에서 발생하게 될 각종 안보위협 대처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즈모급 등의 함정이 일본이 우려하는 도서 방위사태 발생 시 핵심 전력으로서 운용된다는 점이다. 수륙기동단이 창설된다면 이들은 이즈모를 비롯한 함정에 탑승하여 분쟁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진수식 과정에서 공개된 대민지원 및 물자수송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이즈모급은 육상자위대 표준 3.5톤 트럭 50대와 그 물자,

43) https://namu.wiki/w/%ED%95%B4%EC%83%81%EC%9E%90%EC%9C%84%EB%8C%80(검색일 : 2015년 8월 24일).

44) 정경찬, “이즈모급 헬리콥터 호위함 진수의 의미”, 『Military Review』, 2013년 9월호, 49쪽.

www.kci.go.kr

UH-60J 3대와 CH-47 3대, 그리고 450명의 추가 인력 및 개인 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조건을 볼 때 1개 대대급의 상륙군을 탑재하여 작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난세이 제도 일대의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나하에 주둔하고 있는 제15여단에 상륙작전능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 연계로 상륙작전을 위한 테스크 포스(TF)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즈모급 함정 건조에 추가하여 일본 정부는 공격용 함정으로 분류되는 강습양륙함(强襲揚陸艦)도입을 추진하고 있다.[45] 또한 일본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수륙양용장갑차(54대)와 수직이착륙 항공기(V-22, 17대)를 구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46] 강습상륙함은 1천명 이상의 부대를 비롯하여 오스프리, 수륙양용차, 헬기,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용 함정이다. 유사시 작전지휘 사령부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 방위성은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강습양륙함의 필요한 기능과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뒤 이르면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강습상륙함의 기능을 볼 때 이즈모급 함정과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해상에서 육상(도서)으로 전력을 투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나.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과 수륙 기동단 창설이 갖는 함의

명치유신을 계기로 근대화를 이룩하였던 일본의 육·해군은 상륙작전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050185(검색일 : 2015년 7월 30일).

46) 신경진, "준항모・이지스함... 일본 해군력, 중국 앞선 세계 최강급", 『중앙일보』, 2014년 7월 3일, 4면.

www.kci.go.kr

패전함으로써 일본은 과거 운용하였던 모든 군대를 해산시켰고, 자위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패전 7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미·중패권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복합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이 과거 상륙전부대를 운용하였던 경험과 이를 토대로 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의 창설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행보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주고 있다.

첫째, 한국·중국·러시아 등 일본과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 중인 국가들을 자극하게 되어 역내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강력한 상륙전 부대를 운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 기습공격에 성공하였고 주요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과 맞물린 군사력 증강은 일본과 직·간접적으로 분쟁당사국인 국가들에게 일본의 과거 역사는 이러한 행보를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공격성이 강한 해상 투사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이다. 만일 상호 간의 오인과 오산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 될 경우 우발적인 상황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47] 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RAND 연구소에서 발간한 '중국군의 불완전한 변신(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48]에 의하면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일본이 중국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군은 일본군에 비해 군 조직과 구성원의 질적인 측면에서 낮고, 병사와 장교들의 낮은 훈련수준, 무기의 수준 저하 등으로 일본

47) Robert Ayson · Desmond Bell, "Can a Sino-Japanese War Be Controlled?", *Survival*, Vol.56, No.6(2014. Dec.-Jan.), pp.135~166.

48) Michael S. Chase et al,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Santa Monica: RAND, 2015).

www.kci.go.kr

에게 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도 전장의 카멜레온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한 국가의 우세를 점치기에는 제한 사항이 따른다. 또한 잠재적인 분쟁 당사국 간의 군비경쟁은 상호간에 군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되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더욱 상황을 악화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상륙작전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상륙작전 전력 건설로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상륙작전은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륙군은 단순히 자국 영토의 방어나 재해·재난대비 시에만 활용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상륙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병력과 지원화력, 해상전력(잠수함, 화력지원 함정, 상륙함정, 지원함정, 상륙주정, 해상감시자산), 공중전력(항공기, 전투기, 공중감시자산) 등 복합적인 전력이 요구된다. 일본은 이러한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 강습상륙함을 비롯하여 상륙작전에 필수적인 전력들을 도입할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공세적인 전력의 도입은 주변국들에게 안보불안을 야기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 군비경쟁의 도미노 현상을 촉발시키는 주요 인자로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과거 세계적 수준의 상륙작전 부대 운용 경험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상륙전 능력을 단기간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전 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상륙작전 능력을 자신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패전 이후 상륙작전 수행의 맥은 단절되었으나 자체적으로 상륙작전을 위한 교리와 무기, 장비(함정, 주정)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던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떠한 요소들에 비해 과거 상륙전 부대 운용 경험은 향후 일본이 열도를 벗어나 국가이익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넷째, 상륙작전이 가능한 부대의 편성과 이를 투사시키기 위한 함정의 건조 및 도입은 일본군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시·공간적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과거 걸프전쟁 시 거액의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도 병력을 파견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수륙기동단을 보유하게 될 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와 내용을 확대할 수 있고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option)의 종류도 다양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합동작전 운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 상륙전 부대를 운용함에 있어 합동작전이 아닌 육군과 해군이 각각 독자적인 군으로 운용했었다. 그러나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육상자위대에 수륙기동단을 편성하고 해상 자위대가 이들을 투사시킬 수 있는 해상 전력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육·해상 자위대 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패전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육·해군 간의 반목과 질시, 과도한 경쟁이 패전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두 군종 간의 상호협력은 일본 자위대 전체의 전투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주기적으로 연합훈련을 통해 팀웍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이 수륙기동단을 창설 시 한·미·일 삼국 간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연합훈련이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해상으로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삼국 간 대응훈련이 강화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www.kci.go.kr

군사협력을 추진하는데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였으나 향후 미국이 참가하는 3국간의 군사협력의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일본과의 군사협력 또한 증대될 것이다.[49] 이러한 추세는 일본 자위대가 미·일 연합군의 형태로 훈련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5. 결론

아베 정부의 헌법개정 시도는 지난 전후 70년 동안 유지해왔었던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군대의 보유 및 사용을 금지했던 '평화헌법'의 개정은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범위와 성격을 재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 일본이 군국주의를 통한 팽창정책을 추진할 때 운용하였던 해군과 육군의 상륙전 부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해군과 육군은 명치유신 이후에 군사 선진국들의 제도를 모방하여 상륙군을 편성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육군과 해군 간의 합동작전 등 오늘날의 군사력운용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상륙전 부대 운용에 대한 교리, 장비 및 교육훈련 수준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초기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쟁 초기 일본이 파죽지세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상륙전 부대들의 작전수행능력과 맞물려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창설하고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도입하기 위한 의지를 표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주변국들에게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하였던 나쁜 기억상자의 뚜껑을 열게 하고 있다.

---

49) 유용원, "일본 집단적자위권의 불편한 眞實", 『조선일보』(2015. 9. 23.) A31면.

www.kci.go.kr

일본의 상륙작전 부대 운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군은 군사 선진국들의 제도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상륙전 부대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와 유사한 부대를 창설하여 운용하였다. 둘째, 육군과 해군이 독자적으로 상륙전력을 건설하고 운용하였다는 점이다. 상륙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역할은 해군이 주가 되어 실시해 왔으나 일본군의 경우는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이 동일하게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셋째, 육군과 해군에서 운용된 상륙전 부대는 독립된 군종으로서 운용되기보다는 각 군에 종속되어 운용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과 발전이 제한되었다. 넷째, 이러한 지위상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육전대원들은 감투정신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뛰어난 전투수행 능력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 성공적으로 상륙작전 부대를 운용하기 위한 제해권과 제공권의 장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본의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은 최근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창설 움직임과 맞물려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첫째, 한국·중국·러시아 등 일본과 도서영유권 분쟁 및 해양관할권 분쟁중인 국가들을 자극하게 되어 역내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상륙작전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상륙작전 전력 건설로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셋째, 상륙작전이 가능한 부대의 창설은 일본군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시·공간적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은 과거 세계적 수준의 상륙작전 부대 운용 경험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상륙전 능력을 단기간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일본 자위대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섯째,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www.kci.go.kr

상륙전 부대 운용에 대한 일본의 과거 경험과 최근 이러한 전력을 다시 보유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주변국들에게 안보불안감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서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군사력 운용의 변화가 가져오게 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5.9.30, 심사수정일: 2015.11.18, 게재확정일: 2015.11.20.]

주제어 : 일본 육전대, 아시아·태평양 전쟁, 집단적 자위권, 도서방어작전, 수륙기동단

www.kci.go.kr

<ABSTRACT>

The Experience of the Japan's Amphibious Forces Employmen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ment for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Choi Jung-joon

Japan has announced to formalize the creation of the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to defend and retake its island which is considered as a gray zone. Abe regime has put a priority on its military building to have a strong landing forces which based on the assessment that the main factor of its insecurity comes from the matter of disputable Islands. During the Asia-Pacific War, Japan operated the Rikusentai which had imitated the western countries's amphibious forces. The Rikusentai was respectively managed by the Army and Navy. The roles of the Rikusentai was a forceful projection power to spread Japanese military power. In one side, we can see that the Japan's announcement of Amphibious Maneuver Group activation is a normal policy as a state, however, the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criticize and fear that the possibility of Japan's remilitarization. These feelings of concern originate from their past dreadful experiences.

In the past times, Japan had a similar landing forces which had operated as an invasive means to conquer the North-East asian areas.

The Japan's experience of using amphibious operation forces and the trial to build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has a implication as below. First, it can aggravate the unstable status in the region of the North East area especially, between Japan

www.kci.go.kr

and Sino-Russian relations those are disputing the island problems. Second, it can accelerate the arms race to build up the amphibious and counter amphibious forces between Japan and its neighborhood. Third, Japan can develop its amphibious skills in short time because it has a affluent experiences. Fourth, the creation of amphibious maneuver force can be used as a main means of Japan's collective self defense power. Fifth, Japan can develop its joint operation capability among the self defense forces. Finally, it will increase the opportunity of military cooperation among ROK-US-Japan. We should estimate the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the Japan's trial to increase its military power. Now we need to cope with this matter strategically.

Key Words : rikusentai, asia・pacific war, amphibious operation,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amphibious maneuver force

www.kci.go.kr